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민족회개운동 결의대회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우리교회당 비웃 전국 14개 교회서
정오의 회개기도 · 가슴에 베 리본 달기 · 철저한 생활개혁 실천 다짐

오늘 찬양예배 시 민족회개운동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2월을 "민족회개의 달"로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교회를 비롯 전국 10개 도시, 14개 교회에서 일제히 열리게 된다.

이 대회에서는 먼저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이어 민족회개운동의 취지문을 낭독하고 전교인이 합심하여 개인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채택하게 된다.

이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한 갖가지 위기가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민족회개의 달인 2월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은 하

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거울 삼아 여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불신 · 불의 · 불충을 자복하고, 분열과 교권주의 · 물량주의에 물든 한국교회와 새로와 질 것과 민족적 위기가 국민 의식개혁과 갱생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배움을 입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은 가슴에 베로 만든 리본(3면 참조)을 달게 되며 매일 정오에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실천사항

■...우리는 오늘 'IMF 사태'라는 국란을 맞아, 이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채찍으로 겸손히 받아들여 참회를 통해 국가의 회생을 기하고자 '민족회개의 달'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 ① 우리는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믿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좇던 불신, 불충, 불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매일 정오에 '회개 기도'를 드린다.
- ② 우리는 이같은 회개운동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1998년 2월 한 달을

'민족회개의 달'로 정하고 각자 회개의 표현으로 가슴에 '베 리본'을 패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한다.

- ③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건전한 국민으로서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때 민족의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국민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생활개혁에 힘쓴다.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개최

이번 주 12일(목)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통하여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학교의 겨울 계절학교가 개막된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주제로 4층 청년부실에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직장에 다니는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12일(목)과 13일(금)은 오후 7시

~ 10시, 14일(토)에는 오후 5시 ~ 9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최창모 교수(건대 히브리학과)이며 강의 후 적용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펴게 된다.

다른 부서들도 매 주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계절학교 개최에 앞서 우리교회 올해 표어

인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주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하고 효과적인 계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부서별 계절학교의 주제와 일시, 장소 및 강사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일정

부서	주제	실시일	장소	강사
유치부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별관 유치부실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유년부	우리는 거듭난 어린이	23일(월) ~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3층 유년부실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초등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23일(월) ~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2층 초등부실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중등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26일(목) 오전 10시 ~ 27일(금) 오후 2시, 1박 2일간	3층 소망부실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박귀환 목사
고등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23일(월) 오전 9시 ~ 25일(수) 오후 5시, 2박 3일간	한국중앙기도원	이종윤 목사, 이순환 목사, 김정현 목사
대학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16일(월) 오전 10시 ~ 18일(수) 오후 2시 2박 3일간	4층 대학부실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청년부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	12일(목) ~ 13일(금) 오후 7시 ~ 10시, 14일(토) 오후 5시 ~ 9시	4층 청년부실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최창모 교수
사랑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별관 사랑부실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이사야

유다의 현재의 죄

2장 5·11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때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는 여전히 더럽고 누추한 현재적 죄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우상숭배의 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 빛이나 다른 빛이 아닌 여호와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자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어두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어두움에 살고 있음을 한탄합니다. 여호와의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으며 분별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가 많거나 혹은 의로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동방의 풍속을 좇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딸과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칠 제물과 군마로 쓰려고 말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약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그들의 풍속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와의 전으로 들어가던 곳이 근처 시중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왕하23:11).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엉뚱한 것만 찾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물질주의에 빠져서 세상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빛이 없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 빌기도 하고 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되고 점성술을 도입했습니

“아굽 족속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아굽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와 위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에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사2:5-11).

이중윤 목사



을 주며 헛된 것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계속하여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회개케 하기 위해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다. 죄를 짓고도 잘 되는 것같은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교만한 자가 굴복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죄는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죄를 지은 사람의 인격을 격하시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배신행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셔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을 하시고 존귀케 하셨습니다(민23:9). 그러나 이스라엘은 동방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금과 은을 찾았고 마병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예배 대상인 것과 예배 의식까지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시고 영예를 허락하셨지만 이들은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로 가서 피하기를 원했고 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11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MF시대의 어린이

우린 이렇게...

지난 주일 어린이 저녁예배 시간에 유년부와 초등부 어린이들이 쓴 글

IMF 시대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경제를 살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올 때 물을 꼭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쳐서 졸졸 소리가 날 때가 많습니 다. 가끔 엄마가 야단 치시는 게 무서워서 조심하긴 하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그냥 막 돌아갈 때가 많았고 요즈음 같은 겨울철엔 보일러를 켜 놓은 채 바깥에 나갈 때가 많았어요. 문구집에 가서는 마음에 들면 이것 저것 사다보니 안쓰는 지우개가 10개가 넘고 풀도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엔 몰랐었는데 이런 작은 일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 요.

하지만 그동안 알뜰한 면도 있었어요. 사춘언니 옷이나 제 친구 현지 옷은 저를 거치고 또 제 동생 인경이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우리집 비누는 서로 엮어주고 엮히기도 해요 작아진 흰 비누를 새 비누에 붙여서 쓰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물건을 아끼겠습니다.

우예지

함부로 외제품을 사고 예쁜 것만 보면 필요없이 사서 돈을 낭비한 것, 예매 시간에 떠든 일, 주일날 어른들이 놀러 간 것, 엄마에게 짜증부린 것...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초등부 4학년 지원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명은이예요 요즘 TV나 신문 또는 아이들 이야기 속에서 IMF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제 소지품 중에도 외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이제는 돈을 쉽게 쓰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런 것을 지출 다이어트라고 하던데요?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서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요. 어른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간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그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고쳐서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명은 올림

하나님! 그동안 주일 저녁예배에 열심히 나오지 않은 것 죄송해요. 설날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저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나바다 운동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1학년 이성화

회개의 상징 '베 리본' 달기

민족회개의 달로 선포된 2월 한 달 동안 성도들은 베로 만든 리본을 가슴에 달게 된다. 이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었던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회개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본은 삼베를 이용해 물고기 모양 가운데 십자가를 흰색 수로 새겨 넣었다. 베는 회개를 상징하며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신앙고백,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각각 내포하고 있다. 또 흰색 자수는 회개를 통해 이룬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1998년 <순례자> 및 필그림 출판사 조직

발행인 이종운 목사
편집인 이영기 장로
지도 이성득 목사
편집위원 최형렬 김세재 정동호 이종혁 허 숙 박은경
발송위원 한정아 김수호 임송자
촉탁기자 최재춘(유아부) 윤도희(유치부) 이선주(유년부) 조대영(초등부) 문동진(중등부) 최형렬(고등부) 이승현(대학부) 정치은(청년부) 김찬진(새가족부)

순례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올해 들어 <순례자>의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인쇄기를 활용하기 위해 크기를 약간 줄였고 인쇄상태도 달라진 것입니다.

겉모양은 조금 바뀌었지만 <순례자>는 여전히 순례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의 길동무가 되고자 합니다. <순례자> 편집실에서는 항상 성도 여러분의 소박하고 건설적인 내용의 글들을 기다립니다.

특히 동정란에는 교역자의 동정이나 성도 가정의 득남·득녀 소식, 개업 등을 실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원하실 경우에 한해 동정란에 게재하겠습니다.

원고를 주실 분이나 동정란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성득 목사(교회 전화 517-7651) 혹은 각 부서 촉탁기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례자편집실(팩스 516-9641), PC통신(천리안 pek9)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 시대

무슨 기쁨의 풍운(風雲)을 주시려고
이처럼 찬란하게 단장하며
밝아오는가?

불의와 부정이 뒤엉킨
격변과 고난의 길고
흰눈으로 감싸시고
양털로 덮으시는
쾌유의 서풍을 내려주소서.

애써 숨겨진 웃음마저 훑쳐간
지난 날의 상처와 허물들...
질박하고 순진한 웃음으로 반기며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과오(過誤).
기다리던 이의 반가운 소식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시온의 대로 흐르랴게 하소서.

우리 겸허하고 엄숙하게
머리숙여 기도하자
깊숙한 저편에 퇴적한
참 소망을 향해.

아직도 동강난 허리로 오열에 떨며
민족의 설움에 덩구는
저 무리의 한숨을 들어주시려나
패역한 이세대가
가이없이 밝는 이땅,
아! 그 어느때까지니이까.

비록 오늘은 진흙같은 눈물일지나
태우는 기도의 열 재가 되어
거름이 되는 그날,
영원으로 두팔 벌려 맞이하고서
후세에 전할 아름다운 유산으로
일깨우게 하소서.

김두희

(집사, 3교구)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운동

103교회와 결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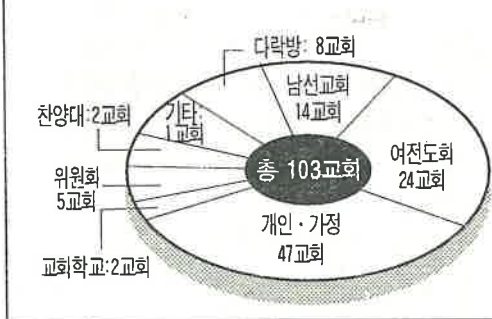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100교회 운동'이 2월 7일 현재 103교회와의 결연이 확정되었다.

올해의 100교회운동에는 개인 혹은 가정이 47개 교회, 남선교회가 14개 교회, 여전도회가 24개 교회, 다락방이 8개 교회, 찬양대가 2개 교회, 위원회 및 당회소속기관 중에서 5개 교회, 교회학교가 2개 교회, 기타 1개 교회와 결연하여 후원하기로 하였다.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2월 7일로 올해의 후원자 접수를 일단 마감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생기는 변동 사항에 관해서는 후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주겠다고 밝혔다.

이미 신청한 후원자 중에서 지원교회와의 결연에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표>에 게재한 바와 같다.

▼올해의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후원자들이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후원금을 송금하는 일을 잘 기억하고 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원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 지원교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교회에서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을 펴기로 결정하였고 1995년에 107개 교회, 1996년 113개 교회, 작년에 117개 교회를 지원했으며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또 그간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을 통해 농어촌 자매교회 목회자 초청 신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족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심도있게 펼치기도 했다.

▼지원현황(정정, 추가, 신규)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2	서천청운교회	강성동(목)	잠실3다락방
57	변촌교회	이금봉(전)	요한 4선교회
58	추도교회	오윤주(목)	전기집·원영애
59	제동교회	이동진(전)	새가족부
61	우두교회	김명희(전)	최재규·천정화
84	방잠교회	정봉기(목)	강종심·전인화
91	도담교회	신창섭(목)	스데반회
100	금선교회	송종운(목)	김종운·김혜영
101	압곡교회	서양수(전)	바울 1선교회
102	주찬양교회	김재윤(전)	최재명·고후덕
103	박산교회	황성배(전)	김석환(임명미)

2월 학습·세례식

2월 학습·세례식이 18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는 8일(주일) 12시 40분 세례자는 15일(주일) 12시 40분에 각각 2층 예배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16일(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있다. 학습·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과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의는 새가족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9일(월)~11일(수) 울산지역 교회연합제직수련회 강사로 참가.
- ◆신미숙 전도사(유치부 지도)는 12일(목) 장신대원을 졸업.
- ◆강인희 집사(4교구 서초다락방)는 5일(목) 교대전철역 앞에 뷰티숍 개업(☎ 593-3458)
- ◆오늘 점심식사는 신정숙 집사, 손성운 집사·김숙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

순례자 컬럼

지붕 위에 난 풀

높은 자리나 탐하고 남의 눈에 띄어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보기에 어설피다. 모든 것은 제 자리가 있고 알맞아야 어울린다.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모습은 지붕위에 난 풀처럼 보기에 괴롭다. 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나 사람을 위한 식용류도 있고 농사를 위한 퇴비도 있다. 그러나 지붕위의 풀은 퇴비나 사료 심지어 똥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쓸모없는 이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양도 얼마되지 못한 지붕위의 풀 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을 짜내는 모퉁이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이제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를 위해
2.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3. 농어촌 자매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